

보기 드문 大作으로 保存狀態도 매우 良好하여 蓮座部分에 岩石의龜裂이 있기는 하나 刻線이 鮮明하게 남아 있다. 面相의 彫刻手法이 特異하고 頭上의 草花는 보기 드문 手法이었다. 그러나 全體의 均衡이 좋은 雄作이라 하겠으니 앞으로 格別한 保存策이 必要할 것이다.

實測值

坐高約 六 m、肩幅 二・二 m、膝幅 三・一 m 蓮花座 幅 三・七 m 同高 八六 cm

大乘寺 木刻幀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查記 第七——

文 甲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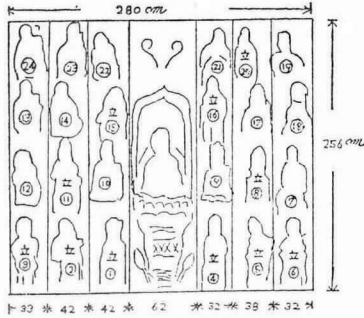
新羅五岳調查團에 隨行하던 去 八月 十二日 大乘寺에서 木刻佛幀을 調査할 機會가 있었기에 그 概要를 紹介하고자 한다.

大乘寺는 慶北 開慶郡 山城面 大乘里 四佛山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 寺名이 三國遺事①에 실려 있는 由緒 깊은 寺刹인데 數年前의 火災로 法堂과 그外 附屬建물이 燒失되어 荒廢되었으나 現在 復舊工事が 한창 進行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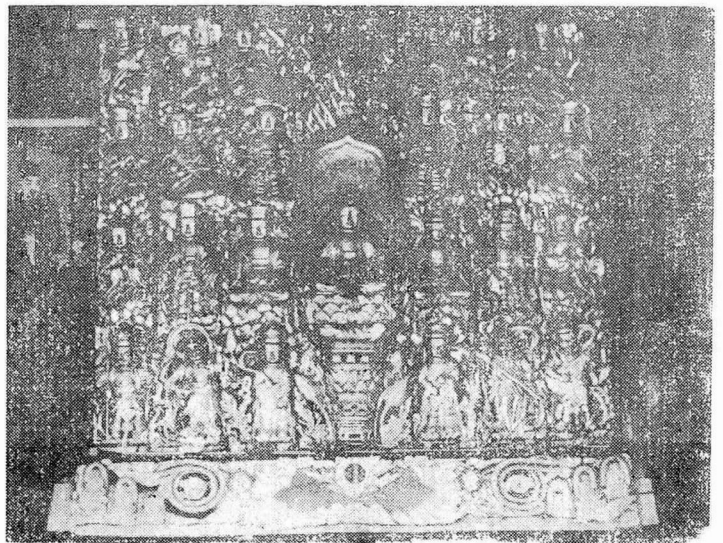
寺內에 殘存하는 몇 가지 遺物

中 木刻佛幀은 그 彫成이 李朝後 期에 屬하며 銘文은 없다고 하나 特記할 만한 大作이었다.

現在 周知된 木刻佛幀은 大乘 寺를 비롯하여 慶北 醴泉 龍門寺、 尙州 南長寺、 全北 實相寺 藥水庵 等에 그 類例를 찾을 수 있겠다. 本佛幀은 本是 榮州 浮石寺 無



第七卷 第九號 通卷七十四號



浮石寺 袒師殿 補修費로 보냄으로서 佛幀은 大乘寺 所有로 歸屬된 것이다. (附錄한 關係文書參照)

後佛幀하면 佛像의 後面을 裝飾하는 壯嚴具로서 흔히 紙 혹은 絹入彩에 그림 (繪畫)으로 나타낸 것이 通例이다. 本佛幀은 後佛幀이라는 點에서 一面 幀畫의 性格을 띄고 있으나 그 材料가 나무(木)이고 그림 아닌 彫刻이니 嚴格히 佛畫라기 보다는 彫刻品으로서 考察 혹은 說明되어야 할 點으로 보아 通例의 佛幀과는 色다른 後佛幀이라고 하겠다.

全面에 金箔이 燦然한 全高 二五六 cm 全幅 二八〇 cm 厚 二五—三〇 cm 的高肉彫인 中心部는 上下로 긴 板木 七枚로 짜여져 있고 다시 別材로 臺部 蓋部等 總十一枚로 構成되어 있으나 中心部만 남기고 分解된 채 復

量壽殿內의 後佛幀으로서 彫成된 것이 나 距今 百餘年前에 本寺 大雄殿 後佛幀으로 移搬되어 奉安되다가 十餘年前의 火災 때 災殃을 謀免하여 大雄殿에서 現在の 極樂殿으로 移安된 것으로 이러한 經緯는 兩寺間에 그 占有를 둘러싼 紛爭을 자아내어 彼此數次의 書狀이 오고간 끝에 結局은 光緒二年 丙子(二八七六 A, D)三月 完議를 보아 大乘寺가 二百五拾兩을

原을 못보고 있다. 中心部는 높이는 蓮花座 위에(高八三cm) 結跏趺座한 本尊(高六一cm・膝幅四二cm・肩幅三〇cm)을 두고左右에 各各三別로 上下四軀의 菩薩 諸天 羅漢 等總二十四軀(立像十二座像十二)를 各已 特徵있는 手印과 持物로서 按配하였으니 位置와 特徵은 다음과 같다.

本尊

蓮花臺座위에

立像

蓮蕾

① 普賢菩薩

龍과 寶珠

② 南方毘盧博叉天王

錫杖과 寶珠

③ 西方毗盧博叉天王

青蓮花

④ 文殊菩薩

長劍

⑤ 東方提頭賴天王

琵琶

⑥ 北方毘沙門天王

智拳印

⑦ 迦葉尊者

手印

⑧ 金剛藏菩薩

蓮莖

⑨ 觀世音菩薩

長劍

⑩ 大勢至菩薩

合掌

⑪ 除障碍菩薩

合掌

⑫ 阿難尊者

合掌

⑬ 帝釋天王

杵

⑭ 目犍蓮尊者

錫杖

⑮ 地藏菩薩

半開蓮花

⑯ 彌勒菩薩

杵

⑰ 舍利弗菩薩

合掌

⑱ 大梵天王

寶珠

⑲ 難陀龍王

蓮莖

⑳ 日光天子

合掌

㉑ 富樓那尊者

蓮花臺위에

㉒ 須菩提尊者

蓮花臺위에

㉓ 月光天子

雲上界에

㉔ 跋難陀龍王

蓮花臺위에

1, 이들 諸像에는 일일이 名稱이 쓰여진 名牌가 있어 곧 佛像을 識別할 수 있음 月光天子와 北方毘沙門天왕의 名牌는 極樂殿으로 옮길 때 脫落 燒失되었다 함.

2, 持物에 있어서 間或 儀軌에 어긋난 것도 있음.

3, 名牌의 글자中 類는 類, 盧는 留로 佛敎辭典에 있으나 原字를 따랐음.

한편 蓋部는 長七四cm 幅二八八cm로 中央 上部에 圓圈을 두르고 第一 毘波戶佛이란 銘이 있고 兩端에 各各三座의 化佛이 크고 작게 彫出되어 있다. 臺部에는 雲紋과 唐草紋을 彫刻하고 있으며 二枚板木과 아울러 額으로 中心部를 받게 되어 있다.

以上概略을 적었거니와 本尊, 脇侍菩薩, 諸天, 眷屬 등 二十五軀를 按配하였으나 그 按配의 意圖가 어떠한 敎理에서의 配慮인지 알기 어려운 일이다. 佛像을 識別함에 있어서 脇侍의 尊像으로 미루어 本尊이 무슨佛이라든가 혹은 眷屬神에서 本尊 脇侍가 무슨佛이라든가 또는 그 尊像의 印契持物을 보아 무슨佛, 무슨菩薩임을 想定하는데 이佛幀에서는 以上 몇가지의 儀軌에는 何等 拘碍됨이 없이 按配되었으니(各像이 서로 相應되는 位置에 配置되긴 하였으나) 어떠한 類의佛幀인지 짐작이 안간다. 蓋部에 쓰여져 있는 第一 毘波戶佛이 이佛幀의 名稱을 뜻하는지? 毘波戶佛의 뜻이 무엇인지 淺識으로는 理解가 안간다. 佛畫라면 크게 尊影像, 變相, 曼荼羅, 肖像畫 등으로 나누고 흔히 尊影像과 變相이 많이 그려졌는데 後佛幀하면 神衆幀이 多數를 占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彫刻으로 나타나서 飛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乾隆 四十七 壬寅(一七八二 A, D) 銘이 있는 實相寺藥水庵 木佛幀②에 比하면 大作이긴 하나 前記 木幀보다는 年代가 降下되는 十九世紀에 들어서서 彫成된 것으로 봄이 좋을 것이다.

註

- ① 三國遺事 卷三四 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 ②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 方丈山 乳兒峰 實相寺菴子 藥水菴 普光殿內 木造佛幀 全幅 一八三cm, 全高一八一cm, 一枚木板에 彫刻되어 있음. 下部에 『乾隆四十七壬寅十一月方丈山實相寺□□』

〔文書 其三〕

道內尚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即三韓古刹

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所重與他自別而寺運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灾法堂僧寮盡入灰爐中伊後僅僅修而佛像新造極爲難使是白加尼即聞順興浮石寺頽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供是白加尼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人僧形俗行出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以矣僧盜

去佛像誣呈議送於 營門至有下殿截之題教亡是如乎蓋此盜佛之說即千萬曖昧也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駭仰訴以此下覽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

題教之下矣等不勝使惶使之還運以去則右莫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愆索賂數百餘金此所謂賣佛之賊也矣等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辨出其勢末由從除良設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緣由茲敢齊聲仰訴於

旬宣之下爲白去乎 糸商教是後 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
地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

日釋法問

敎設

性源

敎儉

有欣

善溢

法典

敬洽

戎三

萬成

智英

敎教

奉先

王敏

道自

侑敏

弼淳

完珠

仁幸

小石

守仁

應閏

永文

三省

達成等

取蓮

法寒

法念

法欣

〔文書 其四〕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

與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丕塞大眾浪散之餘金色殿額圯難繕故諸佛幀像移安

於無量壽殿多年矣 貴寺大災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

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良誠故不得固留而移安門撓弄彼此妄學也鄙寺方欲修補祖殿之學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無一言澄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久愈厚表裏守好之地

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 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靜月有學住持明鶴持殿在文

泰安寺의 大鉢과 銅鐘 二口

——全南 谷城郡 佛蹟 四——

鄭 永 鎬

全南 谷城郡 桐裏山泰安寺는 一名 大安寺라 하여 新羅時代 九門禪山의 하나로 有名한 寺刹이며 現在도 寂忍禪師照輪淸淨塔을 비롯 數點의 指定 文化財가 保存되어 있어 探訪客이 끊임이 없다. 筆者는 지난 一月이 初踏에서 倉庫內의 諸遺物을 過眼할 機會를 얻어 大鉢과 禁口、銅鐘 雲板 等 새로운 資料를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正統十二年銘 大鉢

낯으로 鑄造된 한쌍의 大鉢인데 全徑 九四cm나 되는 大作인 點과 兩表